

모레노호, 우루과이戰 참패 “해법 찾아라”

내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서 베네수엘라 평가전

상대팀 따라 경기력 기복 노출, 승부처 중원 조합 구성 주목 ‘중원 해결사’ 황인범 첫선...새로운 전략·전술 관전 포인트

모레노호 출범 후 두 경기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간 한국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앞서 한국은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를 3-0으로 누르고 기분 좋게 첫걸음을 뒀으나 나흘 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에 1-4로 완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약 1천700명의 한국 선수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밝혔던 모레노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에 맞춰 해외파와 K리거를 두루 기용하며 선수들의 기량과 자신이 요구하는 전술적 개념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지켜봤다.

이번 베네수엘라전에서는 모레노 감독이 우루과이전 패배 후 전술 및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나올지가 중요한 관전 요소다. 특히 앞선 두 경기의 승부처였던 허리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팀의 공수 균형을 책임져야 할 중원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이 쏠린다.

모레노 감독은 몸 상태 때문에 대표팀의 주축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포르투)과 백승호(버밍엄)를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콰도르전에서는 이재성(마인츠)과 박진섭(저장), 우루과이전에서는 이재성과 김봉수(대전)를 중원에 배치했다.

4-4-2 대형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후방 지원, 빌드업, 압박, 공격 연결 등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많은 자리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간 임무를 어떻게 나누고 장점을 극대화하느냐 따라 측면 미드필더 및 공격수의 구성과 쓰임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두 경기에서 모레노호는 상대의 중원 압박 수준에 따라 경기력에 기복을 드러내면서 결국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에콰도르전에서는 중원 싸움이 치열했던 전반에는 0-0으로 맞섰고, 상대 압박이 느슨해진 후반 세 골을 몰아쳐 승리를 낙했다.

그러나 우루과이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 패스와 볼 소유,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반에만 세 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백승호가 결국 컨디션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루과이전 뒤 소집 해제된 가운데 베네수엘라전에서는 ‘중원 해결사’ 황인범이



지난 28일 열린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모레노 감독이 네번째 골을 허용한 뒤 주저앉아 있다. /연합뉴스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인범은 컨디션 조절 등을 위해 지난 두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모레노 감독은 우루과이전 후 “황인범은 베네수엘라와 경기는 출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레노 감독이 황인범의 합류와 함께 어떤 중원 조합으로 우루과이전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풀어내갈지 주목된다.

베네수엘라전에서는 투톱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모두 손흥민(LAFC)과 오현규(베식타시)가 선발로 나섰다.

둘은 에콰도르전에서 나란히 골 맛을 봤고,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타이 기록(58골)을 세웠다.

모레노 감독이 대표팀을 구성할 때 공격수로 분류한 자원에는 조규성(미트윌란)이 소집 해제된 가운데 이동경(울산), 오세훈(시미즈)이 들어 있다.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사계절 스포츠교실 ‘가을엔 클라이밍’

광주시체육회, 종목 다변화·균등 혜택 초점 스포츠복지 구현

광주시체육회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위해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가을 프로그램 클라이밍 교실을 30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가을 클라이밍 교실은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신규 종목이다.

광주시체육회는 그동안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아이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유익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클라이밍 교실을 신설했다.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동구 바위클라이밍센터에서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강습을 통해 클라이밍 기초 기술부터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자치구별 체육환경과 형평성을 고려해 종목과 프로그램을 구별로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진행해 보다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균등하게 스포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기르고, 체력 증진을 물론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사업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고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봄 펜싱, 양궁, 파크골프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교실, 가을에는 클라이밍교실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



30일 동구 바위클라이밍센터에서 진행된 광주시체육회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가을 프로그램 클라이밍 교실 1차 수업을 마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는 스포츠 캠프를 운영하고, 겨울에는 빙상 교실을 열어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을 활용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루 갖춰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체육사업”이라며 “아이들이 이번 클라이밍 교실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탱크’ 출격 후배들과 샷 대결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오늘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이번 주에는 고난도 코스 페럼클럽에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 72)에서 열리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2억5천만원·우승 상금 2억5천만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최경주복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최경주가 호스트로 나선다.

대회가 열리는 페럼클럽은 벙커와 워터 해저드가 위협적인 자리에 배치돼 정확한 샷이 아니면 파를 잡기 쉽지 않은 고난도 코스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전가람이 악천후를 뚫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올해에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페럼클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함정우다.

KPGA 투어 통산 네차례 우승한 함정우는 페럼클럽에서 열린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2021년과 2023년 두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시즌 3승 선착 경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2승을 쓸어 담은 장유빈은 한동안 주춤하다가 지난 13일 끝난 신한동해 오픈에서 준우승하면서 다시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상 포인트와 시즌 상금 순위에서 장유빈이 1위를 달리지만 최안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최안은 지난 4월 우리금융챔피언십에서 시즌 첫승을 올린 뒤 부진했지만, 지난 8월 동아회원 권그룹 오픈에서 우승하며 장유빈과 양강 체제를 이뤘다.

호스트인 최경주는 올해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후배들과 경쟁한다.

만 56세인 최경주는 여전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챔피언스 투어에서 활약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오늘 KT 홈 경기 교촌치킨 스폰서 데이



KIA 타이거즈가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와의 경기에 구단 후원사인 ‘교촌치킨’의 스폰서 데이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교촌치킨에서 초청한 고객 150명이 단체 관람한다.

또한 교촌치킨은 중앙출입구 앞 이벤트 부스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속 측정 체험 이벤트와 포토존 등을 운영하며, 경기 중 이닝 교대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